부동산개발자금(PF) 대출 전문은행
동양저축은행
[062]226-0180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부자결혼의 꿈은,
이루어진다!!!
광주지사 062)228-3222

제17463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6년 6월 2일 (음력 5월 7일) 금요일

"경제 회생으로 國政 전환해야"

'與 최악의 참패' 시민들의 고언

국민의 사는 형편 개선 최대 과제
반시장·반기업 정책기조 바뀌어야

5·31 지방선거가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참패로 끝남에 따라 정부와 여권이 국민의 표에 담긴 여망을 받아들여 현재의 정책 기조를 대대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참여정부 출범의 주역인 광주·전남지역 시민들과 전문가들은 정부·여당이 집권 3년여동안 지나치게 정치논리에 몰입하면서 경제 발전을 통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외면해 왔다고 말하고 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정치개혁과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우선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민심의 의사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와 여당의 반시장적 반기업적 경제정책에 대한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그 어느 때 보다 강하다. 당정의 정책이 '양극화 해소'와 '균형발전'에 집중되면서 지난 3년여에 걸쳐 경기침체가 지속돼 왔으며, 올해도 1분기에 잠시 경기가 회복되는 듯 했으나 중반을 지나면서 하반기에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우세하다.

전남대 김영용(경제학과) 교수는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 인상 정책은 경기를 위축시키고, 이로 인해 기업들이 일자리를 줄임에 따라 결과적으로 양극화 해소는 물 건너 가고 서민들의 어려움만 부채질한 꼴이 됐다"면서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선택이 표로 연결된 것이다"고 분석했다.

무엇보다 국가정책의 불확실성을 해소함과 동시에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기업 활성화를 꾀하고, 이를 곧바로 경제성장으로 연결시키는 노력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세금 인상과 거래를 경색시키는 부동산 정책은 경기 하락을 부추겨 결국 서민들의 생활만 더 고달파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지방선거에 출마한 대부분의 후보들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살리기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국민의 생활이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이번 선거를 계기로 '오기'의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선대 오수열 정치학부 교수는 "노무현 정권의 일관성 없는 정책과 독선적인 정치가 유권자들에게 등을 돌리게 했다"면서 "중구난방식의 각종 정책으로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 서민 경제가 어려워진 것도 지방선거 참패의 결정적인 이유"라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

민주당 소속 광주·전남지역 지방선거 당선자들이 1일 오전 9시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를 위해 정문을 들어서고 있다. 맨 앞줄 왼쪽부터 서채원(남구 광주시의원)·이상동(북구 광주시의원)·전갑길(광주 광산구청장)·황일봉(광주 남구청장)·박광태(광주시장)·박준영(전남도지사)·유태명(광주 동구청장)·전주언(광주 서구청장) 당선자.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광주 기초단체장 5대 0…우리당 전멸
전남은 민주 10·무소속 7·우리 5곳

민주, 광역의원 91% 석권

5·31 지방선거 광주·전남 최종 개표 결과 민주당이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광주 기초단체장 5곳 모두를 석권하는 등 압승을 거뒀다. 전남 22개 시·군 기초단체장은 민주당 10곳, 열린우리당 5곳, 무소속 7곳으로 3분됐다. 특히 무소속 후보들은 양당 대결구도 속에서도 지난 2002년 선거에 이어 대거 약진했다.

광주시장은 민주당 박광태 후보가 51.6%(23만9천884표)를 얻어 33.9%(15만7천756표)를 획득한 열린우리당 조영택 후보를 8만2천여표차로 제치고 당선이 확정됐다.

전남지사도 민주당 박준영 후보가 67.7%(64만894표)를 얻어 19.2%(18만1천756표)를 획득하는데 그친 열린우리당 서범석 후보를 압도적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광주지역 기초단체장도 민주당 유태명 동구청장 후보와 송광운 북구청장 후보, 황일봉 남구청장 후보, 전주언 서구청장 후보, 전갑길 광산구청장 후보가 열린우리당 또는 무소속 후보를 모두 눌렀다.

전남은 민주당이 목포, 여수, 순천, 광양, 강진, 해남, 담양, 보성, 고흥, 화순 등 10곳에서, 열린우리당은 무안, 완도, 진도, 구례, 영암 등 5곳에서 승리했다. 무소속은 나주와 함평, 장성, 곡성, 장흥, 영광, 신안 등 7곳에서 각각 승리하며 돌풍을 일으켰다.

광주·전남 광역의원은 민주당이 전체 의석의 91.4%를 석권했으며, 기초의원 선거구에서도 민주당이 64.3%를 차지해 지방의회를 사실상 장악했다.

민주당은 2004년 4·15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에 참패해 소멸위기에 놓였다가 그 해 6·5 전남지사 보궐선거와 10·30 강진·해남군수 재·보궐선거, 2005년 4·30 목포시장 및 고흥도의원 선거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까지 연거푸 승리, 광주·전남에서 기반을 확고히 구축했다.

전국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230개 선거구 중 한나라당 후보가 전체의 3분의 2가 넘는 155곳에서 당선돼 광역단체장과 마찬가지로 압승했다.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은 19곳을 건지는데 그쳐 여당 선거 사상 최악의 참패를 맛봐야 했다. /정후식기자 who@

지방선거 당선자 명단 ▶5·6·7·8·9면

"참패 책임" 與 정동영의장 사퇴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이 1일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의장직에서 물러났다. 지난 2·18 전대를 통해 취임한 이후 104일 만이다. 이로써 열린우리당은 창당 2년 5개월만에 8번째 의장사퇴 상황을 맞게 됐다.

〈관련기사 3면〉

정 의장은 이날 마지막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질책을 무겁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당 의장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그는 "백의 종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알림
예술 꿈나무들의 근작전

제51회 전국대회 호남예술제
새싹 그리기 축제(유치부) 공모
6월21일까지 접수마감
미술·작문·논술 본선심기대회
광주일보사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물가 36년 정보의 메카니즘
SINCE 1970
국내 최고의 물가전문지
綜合 物價情報
http://www.kpi.or.kr
한국물가정보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KUKJE 국제약품
http://www.kukjepharm.co.kr
변신
난, 변하고 싶어

내가 변덕장이라구?
천만의 말씀!
난 상큼하게 변하고 싶은 10대라구.
센스틱 쭉쭉빵빵이 있으니까
톡톡 터지는 멜론향과 새콤달콤한
과일향까지 – 입술이 변한다.
상큼하게 –

아름다운 입술
SENSTICK
센스틱이 신세대 감각에 맞는 이유
-예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상큼한
멜론향 천연의 과일향이 오래 지속됩니다.
-입술이 자외선으로부터 보호되어 입술
치료효과 및 보습효과로 항상 생기가 넘칩니다.
-그대만을 위한 변신의 입술을 가져다 줍니다.